

월요광장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도시의 매력은 무엇인가? 거대한 빌딩, 광활한 공원, 인상적인 조형물이 도시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도시의 매력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시의 매력은 거리에서 온다. 길으며 마주치는 풍경,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들, 길목통이 작은 가게와 노점, 이 모든 것들이 살아 숨 쉬는 '리듬' 속에서 도시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1961년 제인 제이콥스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도시의 생명은 거리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거리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 각기 다른 이유로 움직이는 이웃들, 시간대마다 달라지는 흐름이 얽혀 있으며, 바로 이런 '보도 위의 발레(Sidewalk Ballet)'야말로 도시를 살리는 힘이라고 했다.

이들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일상과 리듬으로 거리를 채우며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움직임의 뜻한다. 출근길에 서두르는 직장인, 학교로 향하는 학생, 가게 앞을 쓸며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주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뤄내는 풍성한 흐름, 바로 그 속에서 도시의 생명력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고층 아파트와 대

매력 있는 도시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형 쇼핑몰로 채운 단조로운 계획 도시가 아니라 짧은 블록과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어우러진 공간, 다양한 기능이 뒤섞인 거리 속에서 비로소 도시의 삶이 움튼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제이콥스의 통찰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 팬데믹, 고령화, 사회적 불평등, 삶의 질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어떤 도시가 성장하는가?"를 넘어 "어떤 도시가 인간답게 살만할까?"를 묻고 있다.

이런 질문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바로 '15분 도시'와 '대자보 도시'다. 15분 도시는 주거지에서 직장, 학교, 병원, 상점, 공원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곳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15분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꿈꾼다. 거대한 이동 대신, 동네 중심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자보 도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중심에 두는 도시 전략이다.

왜 지금 이 흐름이 필요한가? 첫째, 기후위기 때문이다. 도시 교통은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 중심 생활을 버리고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이동 방식을 바꾸는 것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탄소 감축 방법이다. 광주만 해도 온실가스 직접 배출원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온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둘째, 팬데믹의 교훈 때문이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 지역 생활권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멀리 나가지 않고도 내 동네 안에서 의료, 교육, 소풍, 여가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도시 생활의 질을 결정했다. 결국 위기에 강한 도시는 거대한 이동이 아니라, 촘촘한 생활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 건강과 삶의 질 때문이다. 자동차 이동에 의존하는 생활은 비만과 만성질환을 악화시킨다. 반면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생활 속 운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는 걷기가 가능한 도시가 곧 '건강한 도시'를 의미한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가 된 것이다.

넷째, 도시의 평등 때문이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이동과 생활에 차별받지 않는 도시, 소득과 연령,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진정한 도시의 평등은 자동차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섯째, 경제성 때문이다. 무분별한 확장 대신 기존 도시를 더 촘촘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유지 비용도 훨씬 낮다. 걷기 좋은 거리, 작은 가게, 복합용도 공간은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도시를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바꾼다. 지역 상권이 살아 있고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이 존재하는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하다.

결국 매력 있는 도시는 자동차 위가 아니라 거리 위에서 탄생한다. 화려한 마천루도 광활한 신도시도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걷고 이야기하고 머무를 수 있는 거리에서 도시의 얼굴이 나온다.

15분 도시는 삶의 거리를 압축하고 대자보 도시는 거리의 질을 바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서로를 바라보고 일상을 나누는 거리. 그 속에서 도시의 매력은 비로소 살아난다. 우리는 어떤 거리를 걷고 싶은가? 우리는 어떤 도시를 살아가고 싶은가?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수필의 향기



이중섭
소설가

늦은 밤 가게를 마치고 혼자 거실에서 술을 한잔하려는데 아내가 산책을 하고 돌아왔다.

"와! 꽃이란 꽃은 죄다 피었어!"
평상시와 다르게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멀거니 쳐다보며 이제 보았구나, 생각했다. 날마다 꽃의 흐름을 보는 나지만 낮 동안에 가게에 있는 아내는 그렇지 못했을 터였다. 거실로 들어선 아내가 막걸리를 힐끔 보았다. 수술을 며칠 남기고 무슨 술이냐고 할까 봐 대꾸할 준비를 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 온 딸기를 주섬주섬 꺼내 씻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에서는 파면된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에 도착하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지지자에게 다가가며 학교 잡바를 입은 대학생들과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턱을 든 채 칠패기며 손을 흔들었다. 얼마 전에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웃던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 제정신이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봄 밤의 대화

아내는 중얼거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자라라 조금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표정이었다. 방송에는 끊임없이 파면된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보내고 있었다. 아내가 뜻은 딸기를 김치냉장고에 넣었다.

"하긴,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예전에 고시촌에서 사법시험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애들이잖아."

아내가 김치냉장고를 닫으며 여기다 놓네니 잘 찾아 먹으라 했다. 자폐인 딸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보이는 족족 다 먹어대니 숨겨놓는 것이었다. 숨겨져야 소용없는 일이지만 매번 딸과 아내는 숨바꼭질을 했다.

"그나저나 당신 다알리아아 꽃 좋아해?"
나는 깜박 잊을 뻔한 아내의 생일을 떠올렸다.

"아니 싫어. 생일 선물 하지 마. 뭐 특별한 날도 아니니 앞으로 선물하지 않아도 돼."

조금 생뚱맞았다. 며칠 남지 않은 내 수술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래? 이번 단편소설 '모라추' 원고료 당신 생일에 주려고 했는데."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얼마나 되냐고 물어서 킁속말로 살짝 알려줬다.

"그렇게나 많아?"
이 정도 금액을 많다고 하니 조금 안스러웠다.

"그러면 쥐, 꽃도 받을게."
"이미 늦었어. 안 받는다네 사람한테 뭐 일부러 줄 필요가 있겠어."

"아나, 아나! 받을게. 받아. 그것보다 내가 옆에 앉은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데."

"다음 주에 수술하잖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는 가만히 아내를 보았다. 진짜 수술 때문에 걱정이 많은지 얼굴이 수척했다.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주위에서 그러니 되려 내 마음이 안 좋아지려 하네."

요즘 갑자기 글을 쓸 일이 많아지고 덩달아 글도 탄력을 받아 싶었는데 먹장구름처럼 수술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소식을 알게 된 주위 글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양했다. 그동안 술 마시느라 글에 소홀했으니 이제 글만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사람, 수술을 하고 나면 글이 깊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위에서는 격정하는데 정작 나만 무뎠었다.

며칠 전에 수술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입원한 지 보름만이었다. 수술 후 이삼일 극심하게 아팠지만, 그럭저럭 버텼다. 수술 경과도 좋았다. 집에 누워 있는 동안에도 아내는 여전히 혼자 가게를 보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힘내라는 듯 나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와, 봄밤에, 봄밤에 꽃향기가 전지에 흠날리네!"
해마다 5-18 이즈음에는 하얀 이팝나무꽃과 붉은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곤 했다.

社說

막장드라마보다 더 한 국힘 대선후보 결정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은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선을 통해 결정된 후보를 영입한 후보로 교체를 시도했다가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지도부 문책과 의원직 사퇴 요구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시한을 정해 두고 정당하게 선출한 김문수 대선 후보를 압박했고 막혀들지 않자 새벽 3시에 한 시간이란 후보등록 기간을 두고 한덕수 후보를 등록하게 한 후 김 후보를 대선 후보에서 밀어내려 했다. 새벽 3시에 후보등록 요건 서류로 327지를 요구한 것은 한 후보 1인을 위한 요석행위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 나아가 단일화 시기를 묶는 여론조사에서 당원의 86.7%가 후보 등록 전인 11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김 후보를 압박했고 급기야 심야에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하지만 마지막 절차인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있을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내란 정권의 국무총리를 쫓가마에 태워 대선 후보로 삼으려고 한 것은 당내 경선은 처음부터 요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다음을 엿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원들이 후보 교체를 막은 것은 상식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친윤 지도부의 총 사태와 함께 의원직 사퇴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과 대선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정당 해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요구를 들을만 했다. 이제부터라도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선택적 정의'로 불신 자초한 대법원 개혁 당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촉발한 대법원에 대한 신뢰 위기가 심각하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속전속결했으면서 정작 중요한 재판에서는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일제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관련 재판이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제동원 관련 재판은 2건으로 모두 주 원고들이 광주·전남출신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2022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피권 소송은 3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면서 원고 5명 가운데 양 할머니를 제외한 4명이 고령으로 사망했다.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 주식 특별환급화명명도 2023년 1월 접수됐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재판이 3년 넘게 방치되는 이유는 2022년 7월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윤 정권을 비판하는 여론과 함께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연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계기로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최근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은 9일만에 한 대법원이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집 판결은 3년씩이나 묵히고 있는 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는 대법원의 기한 상피권 소송은 3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면서 원고 5명 가운데 양 할머니를 제외한 4명이 고령으로 사망했다.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 주식 특별환급화명명도 2023년 1월 접수됐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無等鼓

지난 8일(현지시간)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골목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바야흐로 새 교황이 뽐뽐음을 외부에 알리는 신호다. 선출에 실패한 경우에는 검은 연기를 피워 올리게 돼 있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개막 이틀 만에, 4번째 투표만에 미국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새 교황으로 선출했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 수장인 교황을 뽑는 절차다. 라틴어인 '콘클라베'는 '잠금'이라는 의미로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외부와 단절된 채 비밀회의를 진행한 데서 비롯됐다. 만 80세 미만 추기경 선거인단 135명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건강상 이유로 2명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 총 133명 가운데 3분의 2이상인 최소 89명이상이 지지했다.

제267대 교황에 오른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1955년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교리교사로 활동한 아버지와 함께 성당을 다니며 복사로 활동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신학교를 거쳐 교황청립 안젤

리쿰 대학에서 교회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페루 빈민가 등지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다.

미국 출신 추기경이 교황이 된 데 대해 외신들은 놀라다는 반응이다. 도덕적 권위 차원에서 초강대국인 미국 출신은 시기상으로 관세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라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었다. 그만큼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지정

학적 배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포용과 균형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교황 레오 14세는 선출 직후 첫 강복 메시지에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이라고 전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갈등이 지속될 만큼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이다. 레오 14세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의 대선이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풀고 평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는 지도자를 뽑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박성천 문화부장skypark@

기 고



전석희
전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적 변곡점 앞에 서 있다. 정치의 본질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문제는 단연 기후위기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문명은 200여년간 인류에 전례 없는 변형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구의 생태 한계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무엇을 했는가?" 그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연 그 자체에 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위기를 불렀다면 자연에서 모방하고 배워야 할 때다. 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바로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이다.

청색기술은 생물에서 영감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생물영감, 생명을 모방하는 생물모방, 그리고 자연 중심의 기술 전환을 뜻하는 자연중심기술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기술이 아니다. 자연의 38억년 진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생존 전략을, 인간의 기술과 통합하려는 지속가능 기술의 총체다.

NASA는 회진초를 본떠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화

청색기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

성 탐사 로봇을 만들었고 일본의 의료기기는 모기의 주둥이를 모방해 무통 주사기를 개발했다. 연잎의 표면 구조는 자기정화 패인트로, 계곡의 발바닥은 수직 표면을 기어오를 수 있는 로봇 기술로 구현됐다.

청색기술은 이런 자연의 원리를 첨단 기술로 전환하여 탄소 배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며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는 더 이상 과학 저널의 지엽적 사례가 아니다.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신봉해왔다. 하지만 녹색기술은 본질적으로 사후처리적 대응 기술이다. 오염된 뒤 정화하고 파괴된 뒤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청색기술은 오염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기술이다. 예컨대 건축 외벽에 연잎 효과를 구현한 나노 소재를 적용하면 추가 세정 없이도 외벽은 깨끗하게 유지된다. 이처럼 청색기술은 환경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며 기술과 생태가 공존하는 '예방 중심'의 기술이다. 미국의 '프로젝트 드루다운'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상위 25개 기술 중 60%인 15개가 청색기술에 해당된다.

청색기술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융합 지식의 총합이다. 생물학, 생태학, 나노기술, 재료공학, 로봇공학, 인공지능, 건축학, 에너지공학이 모두 얽혀 있다. 이 모든 분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새로운 학제적 지평을 열 수 있는 공간은 바로 대학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대학은 연구소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취약하다. 교육부의 권역별 대학재정 정책

은 대학의 지역 분권화를 해치고 산학연 협력 시스템은 실효성보다 관료적 평가에 시달린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청색기술 특화 연구소'를 대학 내에 설립하는 일이다. 정치권이 말하는 미래 산업, 과학기술 패권, 첨단 생태문명은 모두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거점 대학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국가 연구기관이 대학 안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대학은 청색기술을 통해 학문적 상상력과 지역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으며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생기술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미 2010년 벨기에의 군터 파울리는 '청색경제'에서 100개의 자연중심 기술로 1억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군터 파울리의 동화를 초등교육에 도입하고 청색기술 교육을 정책화했다. 반면 우리는 2020년 국회에 발의된 '청색기술 개발 촉진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지금은 기회다. 청색기술은 단순한 기후 기술이 아니라 '민생기술'이며 산업구조 개편의 디딤돌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정치, 환경 모두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청색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생태적 전환, 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루는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 리더는 청색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연구소를 대학에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지 않다. 미래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